

‘반도체 수출 쇼크’ 광주 경제계 불똥 튄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44.5% 감소에도 광주 68억달러로 성장세 비메모리 반도체로 큰 타격 없지만 소비 위축에 수요 감소 우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며 ‘반도체 수출 쇼크’를 보이자 광주지역 경제계에도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광주 수출 1위 품목으로, 총 수출액의 40%에 육박하는 반도체의 세계적 불황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한국의 수출은 462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로,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 자체가 처음이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의 수출이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로 1년 전 대비 44.5%나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출 부진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도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했다. SK하이닉스 공시를 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손실은 1조7012억원으로, 2012년 3분기(240억원)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 적자를 봤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반도체 부문(DS) 영업 이익도 전년(8조8400억원) 대비 96.9% 급감한

2700억원을 기록해 겨우 적자를 면했다.

이처럼 ‘잘 나가던’ 반도체 시장에 한파가 불어오자 광주지역 경제계에서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반도체가 광주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수출은 전국적인 무역적자 속에서도 179억5000만 달러로, 82억3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의 무역 흑자를 이끈 것은 반도체로,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7.9% 증가해 광주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특히 광주의 반도체 수출은 사상 첫 60억 달러를 돌파해 지역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게 무역협회 측의 설명이다.

광주의 반도체 수출은 2019년과 36억8000만 달러, 2020년 38억1000만 달러에서 2021년 49억8000만 달러로 급성장했다. 여기에 지난해 68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9% 급증, 광주 수출 1위 품목이던 자동차(54억5000만 달러)를 누르고 1위 자리에 올랐다. 전체 수출액에서의 비중도 38.3%에 달한다.

반도체 업황 악화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반도체 업황이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분석과 함께,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작년 대비 7%가량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먹구름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다만 지난달 광주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데 그치거나, 보합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출 쇼크’를 유발했던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였던 반면, 광주에서 수출하는 반도체는 99%가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저장용,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쓰임새가 다르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IT 제품 등 수요가 감소해 재고 물량이 쌓이고 가격이 급락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져 소비가 줄면 제품 생산이 감소, 주요 부품인 시스템 반도체 수요 역시 줄어들 수 있어서다.

광주의 주요 반도체 생산기업인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 관계자는 “생산하는 반도체의 98% 이상이 시스템 반도체로 현재까지 우려스러운 상황은 없다”며 “그렇지만 경기침체가 계속돼 자동차나 PC, 스마트폰 등 제품 소비가 줄면 결국 반도체 등 부품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 뿌리기업 에너지효율화 지원 확 늘린다

지난해 266개사 평균 5800만원 전기료 절감...올해 1천곳 270억원

한국전력은 지난해 266개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해 기업당 평균 580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4월부터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과 고효율 기기 교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1년 전보다 11배 많은 67억원을 투입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 대신 고효율 설비 교체에 투자한 다음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ESCO 사업에는 5곳이 참여해 설비 효율

을 평균 42%까지 개선했다.

고효율 기기 교체시 한전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에는 전년보다 2.4배 늘어난 261개 기업이 참여했다.

한전은 뿌리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발광다이오드(LED)와 인버터, 변압기, 사출성형기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1.5~2배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올해도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뿌리기업, 농사용 고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뿌리기업 1000곳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목표로 전년 대비 4배 증액된 27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무상 에너지 진단 서비스와 연계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식장과 원예농가의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금을 늘리는 한편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충남 아산에 위치한 금속 열처리 기업 ‘장인열처리’에 방문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효율 개선은 에너지 위기 극복의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국세청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민생경제 지원·복지 안전망 구축·조직문화 개선 등 중점 추진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8일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광주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세무서별 우수사례 등을 공유, 내실 있게 추진해 갈 것을 다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영석 청장은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지원, 복지 안전망 구축, 조직문화 개선 등 상반기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 집행을 당부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 불확실과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에게 환급금 조기집행, 납세유예 등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광주국세청은 자체 제작한 ‘찾아가는 현장소통’ 영상을 상영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세무정보를 각종 설명회·간담회 시 납세자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과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확대 등 복지세정 분야를 더욱 강화해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에 기여할 방침이다.

윤영석 청장은 “비정상적·반복적 탈루 유형을 철저히 검증하면서도 조사규모 감축, 간편조사 개선 등 세무부담을 완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나설 것”이라며 “세대 간 화합과 융합을 위한 노력으로 소통과 경청의 문화가 조직 내부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호주오픈 연계 유소년 사회공헌 활동
기아는 최근 호주 멜버른에서 라파 나달 재단(Rafa Nadal Foundation) 유소년들에게 테니스 레슨과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기아 클럽하우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라파 나달 재단 아이들이 현지 아티스트 ‘제스라이’(JESWRI), ‘히스코’(Heesco)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 제공)

광주은행 아파트 담보·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특판

광주은행은 이자 부담 경감 등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주고자 아파트 담보대출 및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대출 특판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특판 감면금리 0.5%포인트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특판 감면금리 0.2%포인트 등 최고 0.4%포인트의 금리가 보

장된다.

대출 한도 총액은 아파트 담보 대출은 1000억원,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200억원이다.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 최근 기준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은 최저 연 4.74%,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최저 연 4.63%를 적용받는다.

이번 상품은 주택 구매 자금과 생활 안정 자금, 다른 은행 대출 상환 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만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예비)가구주 중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 대상이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김두봉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지역민과 고객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 고객의 전·월세 자금 지원을 돕고자 아파트 담보대출과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특판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 수출보험 가입 최대 500만원 지원

수출보증보험 등 4개 종목

전남도가 지역 수출 기업의 수출 거래 위험부담 해소와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규제 등 비상위험으로부터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졸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500만원이며 전남에 소재하고 지난해 수출액 2000만 달러 이하 수출기업에 지원한다.

지원하는 수출보험 상품은 단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4개 종목이다. 보험 종목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단

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의 보험료는 도비 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수출신용보증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로부터 대금 미회수, 수입국 검역, 클레임 비용 등 위험을 한 번에 보장한다. 수출보증보험은 건설, 플랜트 등 수출 기업이 주 고객이며, 수입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한다. 환변동보험은 환차손익을 제거해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한 담보로 사용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3.64(+31.93)
▲ 코스닥	779.98(+7.19)
▲ 금리(국고채 3년)	3.339(+0.024)
▲ 환율(USD)	1260.10(+4.80)